

‘모든 세계의 미래’를 통해 ‘오늘’을 본다

이이남 작가의 베니스비엔날레 참관기

상식·고정관념 탈피한 작품에 절로 겸손
한국관 전시장 LED 미디어아트로 구현
도심 미술관과 어우러진 예술 대향연의 장



영국관 대표작가 사라 루카스는 'Deep Cream Maradona'라는 작품을 통해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인체를 형상화한 설치 작품으로 비교했다.



올해로 56회째를 맞이한 세계 최고의 현대미술 축제 '베니스 비엔날레'가 지난 9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개막했다. 2008년 광주비엔날레에서 총감독을 맡았던 오쿠이 엔위저(51)가 이번엔 베니스에서 총감독을 맡아 '모든 세계의 미래(All the World's Future)'라는 주제로 전시를 펼쳐 보였다. 전 세계인이 체감하는 급진적 사회변화, 고조되는 불확실성과 다양성, 세상을 둘러싼 여러 역학구조와 그 내재된 관계들에 대한 예술가들의 아이디어를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시간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술의 존재 이유로서의 역할을 느낄 수 있었다는 데 있었다. 오쿠이 엔위저는 서사적인 구현보다 사건의 전후 맥락에 중심을 두고 전시를 만들어냈다. 미술이 현실과 동떨어진 죽은 언어가 아닌, '오늘'을 발원하는 살아있는 언어임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유독 사회적 약자, 약소국의 슬픈 삶을 보여주는 작품과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여주려는 작품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필자는 지난 2007년에 베니스 비엔날레를 접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Palazzo Mora와

Palazzo Bembo에서 열리는 '개인의 구조물(Personal Structures)' 전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작품설치와 전시 관람을 위해 3주가량 베니스에 머물며 이곳의 문화 향기를 누렸다. 본 전시 외에도 국가관, 병행전시, 기타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술의 도시 베니스에 산재한 미술관에서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컬렉션과 전시가 이뤄지고 있어 도시 전체가 현대예술의 대향연의 장이 되고 있었다.

수많은 전시공간과 작품, 그리고 그곳을 지나 다니는 관객들 사이에서도 유독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다른 아닌 미디어아트 작품들이었다. 새로운 형태의 모니터와 작품을 구현하는 방식에서 작가로서 느끼는 자극과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하는 겸손함이 기본 좋게 느껴졌다. 거대한, 화려한, 짜릿한, 답답한, 어두운, 밝은, 자극적인, 대범한, 섬세한, 신기한, 대단한 등등 모든 형용사가 다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시각적으로 신선함이 가득한 전시였다.

카스텔로 공원에 마지막으로 입성한 한국관엔 문경원, 전준호의 '비행술과 축지법'이 공간적 특성을 잘 살린 형태로 구현되고 있었다. 전면에 유리로 되어 전시 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던 장소가 곡면의 LED를 사용하여 마치 전시장 자체를 하나의 오브제로 보이게 만든 것이 무척 흥미로웠다. 비행술과 축지법은 2012년 광주비엔날레에서 보았던 'News from Nowhere'가 떠오르며 하나의 연결선상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베니스 비엔날레 본 전시에서 유독 기억에 남았던 작품이 있었다. 영국관의 사라 루카스는 온통 노란색으로 칠해진 전시관에 남성의 신체를 추상적으로 구현한 조각물로 시선을 끌었다. 시각적으로 뻔뻔스러우면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표현방식이 그녀가 얼마나 대담한 사람인지 상



프랑스관 셀레스트 부르지에 무즈노의 '혁명들'은 뿌리에 흙이 묻어 있는 5m 이상 자란 나무들을 전시장 안과 밖에 선보인 작품이다.

상하게 했다. 일상적인 오브제를 이용하여 성의 관념과 고정관념들에 대한 모든 것을 이용하면서도 동시에 파괴하는 그녀의 작품은 짜릿함을 넘어 통쾌함을 느끼게 했다.

또한, 프랑스관의 셀레스트 부르지에 무즈노는 '혁명들'이라는 제목으로 전시장 안과 밖에 나무라는 파격적인 작품을 보여 줬다. 5m에 이르는 뿌리와 흙이 통째로 전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나무는 동력장치를 달아 정지된 상태가 아닌 움직이는 상태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는 제목처럼 움직임을 통해 혁명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형상화하기도 하고 자연을 향한 인위적 간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조각이라는 장

르에 새로운 유형을 보여주었다.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한국작가들도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본 전시를 비롯해 정상화, 이우환, 작고 작가인 김환기 등이 참여하는 한국의 단색화 전시, 김승민 큐레이터가 기획한 '베니스, 이상과 현실 사이(Sleepers in Venice)', 한국 이매리 작가가 참여하는 'Slip of the Tongue', 그리고 필자가 참여하는 'Personal Structures - Crossing boarders' 등이 비엔날레와 같은 기간 동안 도시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 작가들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더불어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비보이 친구에 심봉사 신났네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 '新 심청던' 18~19일 씨어터 연바람

공연 단체가 자신만의 레퍼토리를 갖는 건 꿈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훈 무용과 임지형 교수가 이끄는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은 행복한 단체다.

무용단이 광주문화재단이 공모한 '문화예술공감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선정돼 18~19(오후 7시30분 씨어터 연바람)일 무대에 올리는 '新(新) 심청던'은 지난 2003년 작 '물, 밀, 꽃잎'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다.

그해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과 안무상, 연기상을 수상한 '물, 밀, 꽃잎'은 현대무용의 소재로는 다소 생소한 '심청전'을 참신한 시각으로 재해석, 갈채를 받았다. 이후 2005년과 2007년 광주문예회관에서 공연됐고, 지난 2010년에는 미국 뉴욕 존 라이언극장 무대에 올랐다.

이후 '물, 밀, 꽃잎'은 버전업 과정을 거쳤다. 2011년 뿌리한국무용단과 협업을 통해 '연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공연됐고, 지난해 무등산 자락 전통문화관의 한옥 공연장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新(新) 심청던'이라는 제목으로 공연됐다.

임지형 교수가 안무한 이번 작품은 현대무용에

서 좀처럼 시도하지 않는 마당극 형식을 도입했다. 비보이 댄서들이 봉사로 분해 출연하는 1장 '마을'을 시작으로 바다를 표현하는 미디어 아트와 신비감을 더한 무대와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돋보이는 2장 '용궁', 판소리와 국악기 서양악기가 어우러진 3장 '국악'이 펼쳐진다.

이어 현대무용의 가장 매력적인 요소인 즉흥적인 움직임들이 돋보이는 '궁궐잔치'를 거쳐 논뜰 심봉사와 청이, 동네 사람들이 어우러진 전치 장면의 5장 '에필로그'로 작품을 마무리한다.

연출은 조주연씨다. 시놉시스는 조소희씨가 맡았으며 진시영·이돈규씨가 미디어 아트를 담당했다. 심봉사 역으로는 연극배우 정일행씨가 출연하며 심청역으로는 선유라·김현재씨가 호흡을 맞춘다. 왕역은 김현동, 뽕덕머리 역은 서로씨가 맡았으며 그밖에 김지아·모소혜·구유정·임선영·백규리·이승연씨 등 20여명의 단원들이 출연한다.

한편 '新 심청던'은 오는 6월 16~17일, 7월 21일 씨어터 연바람에서 세차례 더 공연을 갖는다. 문의 062-230-7423. /김미은기자 mekim@



호남예술제 입상자 명단

현악	첼로 초등부 5.6학년	16 신주은(전남예고3)	12 박지우(광주송원초6)	15 양승윤(광주송원중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위원〉 이형석(전 전남대 교수) 배상철(목포대 교수) 현순이(광주대 교수) 임봉순(삼육대 교수) 최영식(경북도청 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상 4 이서준(수원초5) ◇첼로 중등부 1.2학년 ▲은상 2 김윤주(광주수피아여중2) 4 김유현(목포영흥중2) ▲동상 1 김규리(여수진남여중1) ◇첼로 중등부 3학년 ▲금상 8 정민호(목포유달중3) ▲은상 6 장서영(순천매산중3) ▲동상 7 이정은(조대여중3) 10 광지연(무안북중3) ◇첼로 고등부 1.2학년 ▲금상 4 김지선(전주예고2) ▲동상 1 안세현(전남예고2) 3 장신행(전남예고1) 8 고지현(전남예고2) ◇첼로 고등부 3학년 ▲금상 12 안세희(원광정보예고3) 15 강 리(광주예고3) ▲은상 7 이주이(동아여고3) 11 변재홍(광주동성고3) 14 구하나(전주예고3) ▲동상 10 김지선(전남예고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 박지우(광주송원초6) 14 박세연(광주송원초6) 16 이승재(전주용흥초6) 25 한다원(광주송원초6) 28 조예영(영주초6) ▲은상 6 정지윤(광주송원초6) 9 김리원(광주송원초5) ▲동상 3 황지영(광주송원초5) 11 김현서(광주교대광주부설초5) 19 윤세은(광주봉산초6) 21 강유진(조봉초6) 23 유채린(살레시오초6) 26 전서영(광주교대목포부속초5) 27 이정인(광주송원초6) ◇바이올린 초등부 1.2 ▲금상 3 김예화(백운초4) 7 김윤강(불로초3) 13 한수민(불로초3) ▲은상 4 홍지유(유안초4) 9 김정아(광림초3) ▲동상 8 김보미(광주삼육초4) 11 정하윤(광주삼육초3) 10 신현서(광주송원초4) ◇바이올린 초등부 3.4 ▲최고상 6 남하승(울리초4) ▲금상 3 김예화(백운초4) 7 김윤강(불로초3) 13 한수민(불로초3) ▲은상 4 홍지유(유안초4) 9 김정아(광림초3) ▲동상 8 김보미(광주삼육초4) 11 정하윤(광주삼육초3) 10 신현서(광주송원초4) ◇바이올린 초등부 5.6 ▲금상 2 오승아(광주삼육초6) 5 심아영(하백초5) 7 김정환(광림초5)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박주연(광주예고2) 21 채지은(광주예고2) ▲은상 1 문민주(광주예고2) 7 조세음(광주예고1) ▲동상 5 신혜비(광주예고1) ◇바이올린 고등부 3 ▲금상 15 김은민(광주예고3) 17 조예원(전주예고3) 20 김경호(전주예고3) ▲은상 11 이수연(광주예고3) 19 조유진(19970918생) ▲동상 9 이세린(전주예고3) 12 박성은(전주예고3) 13 정시원(원광정보예고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상 18 조수연(고흥여중3) ▲은상 11 조서린(광양제철중3) 14 김강연(무안중3) ◇바이올린 고등부 1.2 ▲금상 3 박주연(광주예고2) 21 채지은(광주예고2) ▲은상 1 문민주(광주예고2) 7 조세음(광주예고1) ▲동상 5 신혜비(광주예고1) ◇바이올린 고등부 3 ▲금상 15 김은민(광주예고3) 17 조예원(전주예고3) 20 김경호(전주예고3) ▲은상 11 이수연(광주예고3) 19 조유진(19970918생) ▲동상 9 이세린(전주예고3) 12 박성은(전주예고3) 13 정시원(원광정보예고3)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이태리가구

명품소파

던롭침대

가구빌딩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